

이중언어
금빛 여우 / 눈깔사탕

니이미 난키치



バイリンガル^{ばん}版
ぎつね ^{だま}
ごん 狐 ・ あめ玉
にい み なんきち
新美南吉

한국어와 일본어
かんこくご と にほんご

た げん ご でん し え ほんぶん こ
多言語電子絵本文庫 13

목 차

금빛 여우	5
눈갈사탕	44

< 시작하며 >

2003 년,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어머니가 “일본에서는 내 모국어가 필요 없네요.”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어가 그 아이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09 년부터 다국어 전자 그림책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2022 년 1 월, 인쇄된 책으로도 읽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 책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성은 RAINBOW 사이트에서 들어주십시오.

<はじめに>

2003年、国際結婚をしている外国人のお母さんが、「日本では私のことは必要がない」と言うのを聞きました。両親のことが子どもに引き継がれるように願って、2009年から多言語電子絵本を制作してき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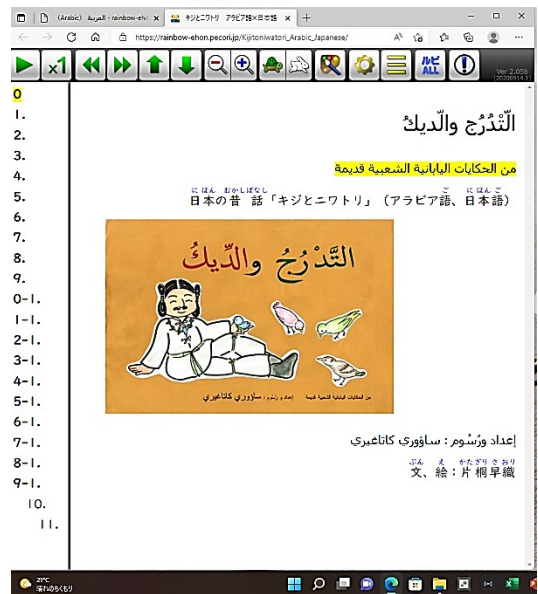
お話を多言語に翻訳し、音訳して、マルチメディアデ이지形式の電子絵本をつくり、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ています。

2022年1月、印刷された本で読みたいという要望が寄せられ、本誌を作ることになりました。音声はRAINBOWのサイトから聴いてください。

<멀티미디어 데이지 도서>

인쇄된 글자를 쉽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독서를 도와주는 전자도서입니다. 화면상의 글자는 음성과 함께 노란게 강조 표시되기 때문에 어디를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나 속도도 읽는 사람에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RAINBOW의 작품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바로 데이지를 재생하는 ChattyBooks로 되어 있습니다.



<マルチメディアデ이지ー図書について>

印刷された文字をすらすら読めない人の読書を助けてくれる



電子図書です。画面上の文字は、音声とともに黄色くハイライトしていくの

で、どこを読んでいるかわかります。文字の大きさや速さも読む人に合わせて、
変えることができます。

RAINBOWの作品はパソコン、タブレット、スマートフォンで、すぐに再生
する ChattyBooks (チャッティブックス) になっています。

多言語絵本の会RAINBOW

<https://www.rainbow-ehon.com>

금빛 여우

ぎつね
гон 狐

니이미 난키치

にい み なんきち
新美南吉



번역 고예영

이 이야기는 내가 어릴 적 마을에 살던 모헤이라는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것입니다.

옛날 옛날 우리 마을 근처 나카야마라는 곳에 작은 성이 있었는데, 나카야마라고 하는 영주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いち
—

これは、^{わたし}私が ^{ちい}小さい ときに、^{むら}村の ^{もへい}茂平と いう おじい
さんから ^{はなし}きいた お話です。

むかしは、^{わたし}私たちの ^{むら}村の ^{ちかく}ちかくの、^{なかやま}中山と いう ところに
^{ちい}小さな ^{しろ}お城が あって、^{なかやま}中山さまと いう おとのさまが、おら
れたそうです。



이 성에서 조금 떨어진 산 속에 '금빛 여우'라는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외톨이인 꼬마 여우 금빛은 고사리가 무성한 숲 굴 속에 홀로 살고 있었는데 밤이나 낮이나 근처 마을로 내려가 장난만 쳤습니다.

밭에 들어가 감자를 파헤치고 유채 짚단을 말리고
있는 들판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농가 뒷마당에 걸어
놓은 고추를 잡아 뜯는 등 온갖 말썽을 부렸습니다.

その ^{なかやま}中山から、^{すこ}少し はなれた ^{やま}山の ^{なか}中に、「^{ぎつね}ごん狐」と
いう ^{ぎつね}狐が いました。

ごんは、^{ひとり}一人ぼっちの ^{こぎつね}小狐で、^{しだの}しだの ^{いっ}ぱい ^{しげった}しげった
^{もり}森の ^{なか}中に ^{あな}穴を ^{ほって}ほって ^す住んで いました。そして、^{よる}夜でも
^{ひる}昼でも、あたりの ^{むら}村へ ^で出て ^{きて}きて、いたずら ^{ばかり}ばかり しました。
はたけへ ^{はい}入って ^{いも}芋を ^{ほり}ほりちらしたり、^{なたね}菜種がらの、ほして
あるのへ ^ひ火を ^{つけたり}つけたり、^{ひゃくしょうや}百姓家の ^{うらて}裏手に ^{つるして}つるして
ある ^{とんがらし}とんがらしを ^{おしり}おしりにとって、^{いったり}いったり、^{いろん}んな
ことを しました。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이삼일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바람에 금빛은 밖에 나가지 못하고 굴 안에 웅크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ある あき の ことでした。二、三日 あめ が ふりつづいた その
あいだ 間、ごんは、そと へ も 出られなくて あな なか 中に しゃがんで
いました。

비가 그치자 금빛은 안도하며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활짝 개어 새들이 지지배배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あめ が あがると、ごんは、ほっとして あな から はい出ました。
そら は からっと は 晴れて いて、も ず 百舌鳥の こえ が きんきん、ひび
いて いました。

금빛은 마을의 작은 강둑까지 나왔습니다. 근처 억새
이삭에는 아직도 빗방울이 맺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양은 늘 적은 편이었지만 사흘이나 비가 온
탓인지 물이 제법 불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에 잠길
일이 없는 강변의 억새와 싸리 나무가 탁해진 물에

쓸려 뉘어진 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빛은 강 아래쪽을 향해 질퍽거리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ごんは、^{むら}村の ^{おがわ}小川の ^{つつみ}堤まで ^で出て ^き来ました。あたりの、
すすきの ^ほ穂には、まだ ^{あめ}雨の ^{しずくが}しずくが ^{ひか}光って いました。
^{かわ}川は、いつもは ^{みず}水が ^{すくな}少ないのですが、^{みつか}三日もの ^{あめ}雨で、^{みず}水が、

どっと まして いました。ただの ときは ^{みず}水に つかる ことの ない、^{かわ}川べりの ^{はぎ}すすきや、^{かぶ}萩の ^き株が、黄いろくに
ごった ^{みず}水に ^{よこ}横だおしに なって、もまれて います。ごん
は ^{かわしも}川下 の ^{ほう}方へと、ぬかるみ みちを ^{ある}歩いて いました。

얼핏 강 안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금빛은 들키지 않도록 살금살금 풀이
무성한 곳으로 다가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ふと ^み見ると、^{かわ}川の ^{なか}中に ^{ひと}人が ^{なに}いて、何か ^やって ^{いま}いま
す。ごんは、^み見つからないように、そうっと ^{くさ}草の ^{ふか}深い ^{ところ}ところ
へ ^{ある}歩きよって、そこから ^じっと ^{のぞ}いて ^みみました。

‘효주구나.’ 금빛은 생각했습니다. 효주는 낡은 검은
옷을 걷어 올리고 허리춤까지 물이 찬 곳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띠를
두른 얼굴 한쪽 볼에는 동그란 싸리잎 한 장이 큰 검은
점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ひょうじゅう}兵十だな」と、ごんは ^{おも}思いました。^{ひょうじゅう}兵十は ぼろぼろの
^{くろ}黒い ^きものを まくし上げて、^{こし}腰の ところまで ^{みず}水に
ひたりながら、^{さかな}魚を とる、はりきりと ^{あみ}いう、^{あみ}網を ゆすぶって
いました。はちまきを ^{かお}した ^{よこ}顔の 横っちょうに、まるい ^{はぎ}萩
の ^は葉が ^{いち}一まい、^{おお}大きな ^{ほくろ}黒子みたいに へばりついて いました。



잠시 후 효주는 그물 제일 꼬트머리, 주머니처럼
불룩해져 있는 부분을 물 속에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풀뿌리, 이파리, 썩은 나뭇가지 등이 뒤엉켜 있었는데
군데군데 하얀 무엇인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텁게 살이 오른 장어와 보리멸의 배였습니다.
효주는 장어와 보리멸을 잡동사니와 함께 자신의
어룡에 집어 넣고 입구를 잘 묶은 뒤 다시 물 속에
넣었습니다.

しばらくすると、兵十^{ひょうじゅう}は、はりきり網^{あみ}の 一ばん うしろ
の、袋^{ふくろ}の ように なった ところを、水^{みず}の 中^{なか}から もちあげ
ました。その 中^{なか}には、芝^{しば}の 根^ねや、草^{くさ}の 葉^はや、くさった 木^き
ぎれ などが、ごちゃごちゃ はいって いましたが、でも
ところどころ、白^{しろ}い ものが きらきら 光^{ひか}って います。それ
は、ふとい うなぎの 腹^{はら}や、大きな きすの 腹^{はら}でした。兵十^{ひょうじゅう}
は、びくの 中^{なか}へ、その うなぎや きすを、ごみと いっ
ぶちこみました。そして、また、袋^{ふくろ}の 口^{くち}を しばって、水^{みず}の
中^{なか}へ 入^いれました。

그리고 나서 효주는 그물을 들고 다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지 강의 위쪽으로 뛰어갔습니다.

ひょうじゅう 兵十は それから、びくを もって かわから あが 上り びくを
どて 土手に おいといて、なに 何を さがしにか、かわかみ 川上の ほう 方へ かけて
いきました。



효주가 사라지자 금빛은 풀숲에서 뛰어나와 어룡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장난치고 싶어진 것입니다. 금빛은 어룡 속 물고기를 집어 꺼내서는 그물이 쳐져 있는 곳에서 확확 아래쪽 강을 향해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모두 침병 소리를 내며 탁해진 물 속으로 헤엄쳐 사라졌습니다.

ひょうじゅう 兵十が いなく なると、ごんは、ぴょいと くさの なか 草の中から
とび出して、びくの そばへ かけつけました。ちょっと、いた
ずらが したく なったのです。ごんは びくの なか 中の さかな 魚を
つかみ出しては、はりきり 網の かかって いる ところより
しも て 下手の かわ 川の なか 中を 目がけて、ぽんぽん なげこみました。
どの さかな 魚も、「とぼん」と おと 音を た 立てながら、にごった みず 水の
なか 中へ もぐりこみました。

마지막으로 살이 통통한 장어를 잡으려 덤벼 봤으나 너무 미끈거리려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조바심이 난 금빛은 어룡 안으로 자기의 머리를 쑥 집어 넣어 장어

머리를 입으로 물었습니다. 장어는 킁 하며 순식간에 금빛의 목을 휘감아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효주가 저 멀리서 “야, 이 도둑놈 여우야!” 라고 고함쳤습니다. 금빛은 화들짝 놀라 펄쩍 뛰었습니다. 장어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장어는 금빛의 목을 둘둘 감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빛은 장어에 감긴 그대로 허둥지둥 죽어라 도망쳤습니다.

いっばん しまいに、太い うなぎを つかみに かかりましたが、何しろ ぬるぬると すべりぬけるので、手では つかめません。ごんは じれったく なって、頭を びくの 中に つっこんで、うなぎの 頭を 口に くわえました。うなぎは、キュッと 言って ごんの 首へ まきつけました。

その とたんに 兵十が、向うから、「うわア ぬすと 狐め」と、どなりたてました。

ごんは、びっくりして とびあがりました。うなぎを ふりすてて にげようと しましたが、うなぎは、ごんの 首に まきつ

いたまま はなれません。ごんは そのまま 横^{よこ}っとびに とび
出^だして 一^{いっ}しょうけんめいに、にげて いました。

굴 근처 오리나무 아래에서 뒤돌아 보았더니 효주는
뒤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금빛은 안도하며 장어 머리를
깨물어 겨우 떼어놓고는 굴 밖 풀잎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ほら穴^{あな}の 近く^{ちか}の、はんの 木^きの 下^{した}で ふりかえって 見^みま
したが、兵^{ひょうじゅう}十^おは 追^おっかけては 来^きませんでした。

ごんは、ほっとして、うなぎの 頭^{あたま}を かみくだき、やっと
はずして 穴^{あな}の そとの、草^{くさ}の 葉^はの 上^{うへ}に のせて おきました。

2

열흘 정도 지나 금빛이 야스케라는 농부의 집 뒤쪽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야스케 부인이
이를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 신베에의

집을 지날 때는 신베에의 부인이 머리를 곱게 빗고
있었습니다. 금빛은, '흠, 마을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뭐지? 가을 축제인가? 축제라면 북이나 피리 소리가
날 텐데. 더구나 무엇보다도 신사에 깃발을 가장 먼저
세웠을 텐데 말이지.’

二

十日ほど たって、ごんが、弥助と いう お百姓の 家の
裏を 通りかかりますと、そこの、いちじくの 木の かげで、
弥助の 家内が、おはぐろを つけて いました。鍛冶屋の 新
兵衛の 家の うらを 通ると、新兵衛の 家内が 髪を すい
て いました。

ごんは、「ふふん、村に 何か あるんだな」と、思いました。
「何だろう、秋祭かな。祭なら、太鼓や 笛の 音が しそうな
ものだ。それに 第一、お宮に のぼりが 立つ はずだ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오자니 어느새 빨간 우물이 있는 효주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작고 다 허물어져가는 집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허리에는 수건을 둘러맨 여자들이 바깥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 안에는 무엇인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こんな ことを ^{かんが} 考えながら やって ^き 来ますと、いつの^ま間に
か、^{おもて} 表に ^{あか} 赤い ^{い ど} 井戸の ある、^{ひょうじゅう} 兵十の ^{いえ} 家の ^{まえ} 前へ ^き 来ました。
その ^{ちい} 小さな、こわれかけた ^{いえ} 家の ^{なか} 中には、^{おおぜい} 大勢の ^{ひと} 人が あ
つまって いました。よそいきの ^{きもの} 着物を ^き 着て、^{こし} 腰に ^{て ぬぐい} 手拭を
さげたり した ^{おんな} 女たちが、^{おもて} 表の ^{かまど} かまどで ^ひ 火を ^{たいて} たいて い
ます。^{おお} 大きな ^{なべ} 鍋の ^{なか} 中では、^{なに} 何か ^に ぐずぐず 煮えて いました。

‘아! 장례식이구나.’ 하며 금빛은 깨달았습니다.

‘효주 집에 누군가가 돌아가셨나 보네.’

「ああ、葬式だ」と、ごんは 思いました。

「兵十の家のだれが死んだんだろう」

正오가 지날 무렵, 금빛은 마을 묘지로 가 지장
보살상의 그림자 밑에 숨었습니다. 날씨가 좋아 저 멀리
성 지붕의 기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묘지에는 석산
꽃이 붉은 천을 펼쳐 놓은 듯 끝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땡땡땡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례가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お午が すぎると、ごんは、村の 墓地へ 行って、六地藏さ
んの かげに かくれて いました。いい お天気で、遠く 向
うには、お城の 屋根瓦が 光って います。墓地には、ひがん
ばなが、赤い 布の ように さきつづいて いました。と、村の
ほうから、カーン、カーン、と、鐘が 鳴って 来ました。葬式の
で 出る 合図です。



곧 하얀 소복을 입은 장례 행렬이 다가오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소리도 가까워졌습니다. 장례 행렬이 묘지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니 석산 꽃이 밟혀 있었습니다.

やがて、^{しろ}白い ^{きもの}着物を ^き着た ^{そうれつ}葬列の ^{もの}ものたちが やって
くるのが ^みちらちら ^み見えはじめました。^{はなしごえ}話声も ^{ちか}近く なりま
した。^{そうれつ}葬列は ^{ぼち}墓地へ ^きはいって ^き来ました。^{ひとびと}人々が ^{とお}通った
あとには、^{ばな}ひがん花が、ふみおられて いました。

金빛은 몸을 쪽 세우고 지켜보았습니다. 효주가 하얀
옷을 갖춰 입고 위패를 들고 있습니다. 평소 붉은
고구마처럼 혈기왕성한 얼굴이 오늘은 왠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아, 돌아가신 분이 효주의 어머니구나.’

金빛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를 떨구었습니다.

ごんは のびあがって ^み見ました。^{ひょうじゅう}兵十が、^{しろ}白い ^{かみ}かみしもを
つけて、^{いはい}位牌を ^さささげて ^いいます。いつもは、^{あか}赤い ^{さつま}さつま芋
みたいな ^{げんき}元気の ^{いい}いい ^{かお}顔が、きょうは ^{なん}何だか ^ししおれて
いました。

「ははん、^し死んだのは ^{ひょうじゅう}兵十の ^{かあ}おっ母だ」

ごんは そう ^{おも}思いながら、^{あたま}頭を ひっこめました。



그날 밤, 금빛은 굴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효주의 어머니가 병으로 누워 계시면서 장어가
드시고 싶다고 한 게 틀림없어. 그래서 효주가 그물을
들고 나온 거야. 그런데 내가 장난을 쳐 장어를 갖고

와버렸으니 효주는 어머니께 장어를 대접하지 못했겠지.
그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분명해. 아, 장어가 먹고
싶네, 장어가 먹고 싶어! 하며 돌아가셨겠지. 그런
장난하지 말 걸 그랬어!

その 晩、ごんは、穴の 中で 考えました。

「兵十の おっ母は、床に ついて いて、うなぎが 食べたい
と 言ったに ちがいない。それで 兵十が はりきり網を も
ち出したんだ。ところが、わしが いたずらを して、うなぎを
とって 来て しまった。だから 兵十は、おっ母に うなぎを
食べさせる ことが できなかった。そのまま おっ母は、死ん
じゃったに ちがいない。ああ、うなぎが 食べたい、うなぎが
食べたいと おもいながら、死んだんだろう。ちょッ、あんな
いたずらを しなけりゃ よかった」

효주가 붉은 우물 근처에서 보리를 씻고 있었습니다.
 효주는 지금껏 홀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제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효주도 나처럼 외톨이가 되었네.’

곳간 뒤에서 보고 있던 금빛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さん
三

ひょうじゅう ^{あか}兵十が、赤い ^{いど}井戸の ^{むぎ}ところで、麦を ^いといて ^いました。

ひょうじゅう ^{いま}兵十は ^{かあ}今まで、おっ母と ^{ふたり}二人きりで、^{まず}貧しい ^しくらしを ^しして ^{いた}もので、^{かあ}おっ母が ^し死んで ^{しま}っては、^{ひとり}もう ^{ひとり}一人
 ぼっちでした。

「おれと ^{おな}同じ ^{ひとり}一人ぼっちの ^{ひょうじゅう}兵十か」

こちらの ^{もの}物置の ^{うしろ}後から ^み見て ^{いた} ごんは、^{おも}そう ^{おも}思いました。



금빛이 곳간에서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정어리 장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싸요 싸. 싱싱한 정어리예요!”

금빛은 우렁찬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야스케 부인이 뒷문에서, “정어리 좀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어리 장수는 생선 바구니를 실은

수레를 길가에 놓고, 반짝반짝 빛나는 정어리를 양손에 들고 야스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ごんは 物置^{ものおき}の そばを はなれて、向^{むこ}うへ いきかけます
と、どこかで、いわしを 売^うる 声^{こえ}が します。
「いわしの やすうりだアイ。いきの いい いわしだアイ」
ごんは、その、いせいの いい 声^{こえ}の する 方^{ほう}へ 走^{はし}って いき
ました。と、弥助^{やすけ}の おかみさんが、裏戸口^{うらとぐち}から、「いわしを お
くれ」と 言^いいました。いわし 売^{うり}は、いわしの かごを つんだ
車^{くるま}を、道^{みち}ばたに おいて、ぴかぴか 光^{ひか}る いわしを 両手^{りょうて}で
つかんで、弥助^{やすけ}の 家^{いえ}の 中^{なか}へ もって はいりました。

금빛은 그 틈을 타 바구니 안에서 정어리 대여섯
마리를 꺼내 원래 왔던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효주의 집 뒷문에서 안쪽으로 정어리를 던지고는 굴을
향해 달려 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언덕 위에서
뒤돌아 보니 효주는 아직 우물 근처에서 보리를 씻고
있었습니다.

금빛은 장어로 장난친 것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우선 좋은 일 하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ごんは その すきまに、かごの ^{なか}中から、五、六^{ご ろっ}ぴきの い
わしを ^だつかみ出して、もと ^き来た ^{ほう}方へ ^なかけだしました。
そして、^{ひょうじゅう}兵十の ^{いえ}家の ^{うらぐち}裏口から、^{いえ}家の ^{なか}中へ ^ないわしを ^な投げ
こんで、^{あな}穴へ ^{むか}向って ^{とちゅう}かけもどりました。途中の ^{さか}坂の ^{うえ}上で
ふりかえって ^み見ますと、^{ひょうじゅう}兵十が ^{いど}まだ、井戸の ^{ところ}ところで ^{むぎ}麦
を ^{ちい}といて ^みいるのが ^み小さく ^み見えました。

ごんは、うなぎの ^{ひと}つぐないに、まず ^{ひと}一つ、いい ^{こと}ことを
したと ^{おも}思いました。

다음 날 금빛은 산에서 밤을 잔뜩 주워 품에 한 가득 안고 효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에서 힐끗 보니 효주는 점심을 먹다 말고 밥그릇을 든 채로 멍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효주의 볼에는 굵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하며 이상하게 여기던 그때 효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つぎの ^ひ日には、ごんは ^{やま}山で ^{くり}栗を どっさり ひろって、
それを かかえて、^{ひょうじゅう}兵十の ^{いえ}家へ いきました。^{うらぐち}裏口から のぞ
いて ^み見ますと、^{ひょうじゅう}兵十は、^{ひるめし}午飯を たべかけて、^{ちawan}茶碗を もった
まま、ぼんやりと ^{かんが}考えこんで いました。へんな ことには
^{ひょうじゅう}兵十の ^{ほっ}頬ぺたに、かすり^{きず}傷が ついて います。どう したん
だろうと、ごんが ^{おも}思っ ていますと、^{ひょうじゅう}兵十が ひとりごとを
いいました。



“도대체 누가 정어리 같은 것을 우리 집에 집어 던진 거야? 그 덕에 내가 도둑으로 오해 받아 정어리 가게 주인에게 혼썰이 났잖아.” 라고 투덜댔습니다.

「^{いっ}たい だれが、いわし なんかを おれの ^{いえ}家へ ^{ほうり}こんで ^いったんだろう。おかげで おれは、^{ぬす}盗人と ^{おも}思われて、いわし^や屋の やつに、ひどい ^め目に ^あわされた」と、ぶつ
ぶつ ^い言っ^て います。

금빛은 아차 했습니다. 불쌍한 효주가 정어리 주인에게 뱀다 맞아 얼굴에 저런 상처가 생긴 건가? 금빛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그머니 곳간 입구에 밤을 놓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금빛은 밤을 주워 효주의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밤뿐만 아니라 송이버섯도 가져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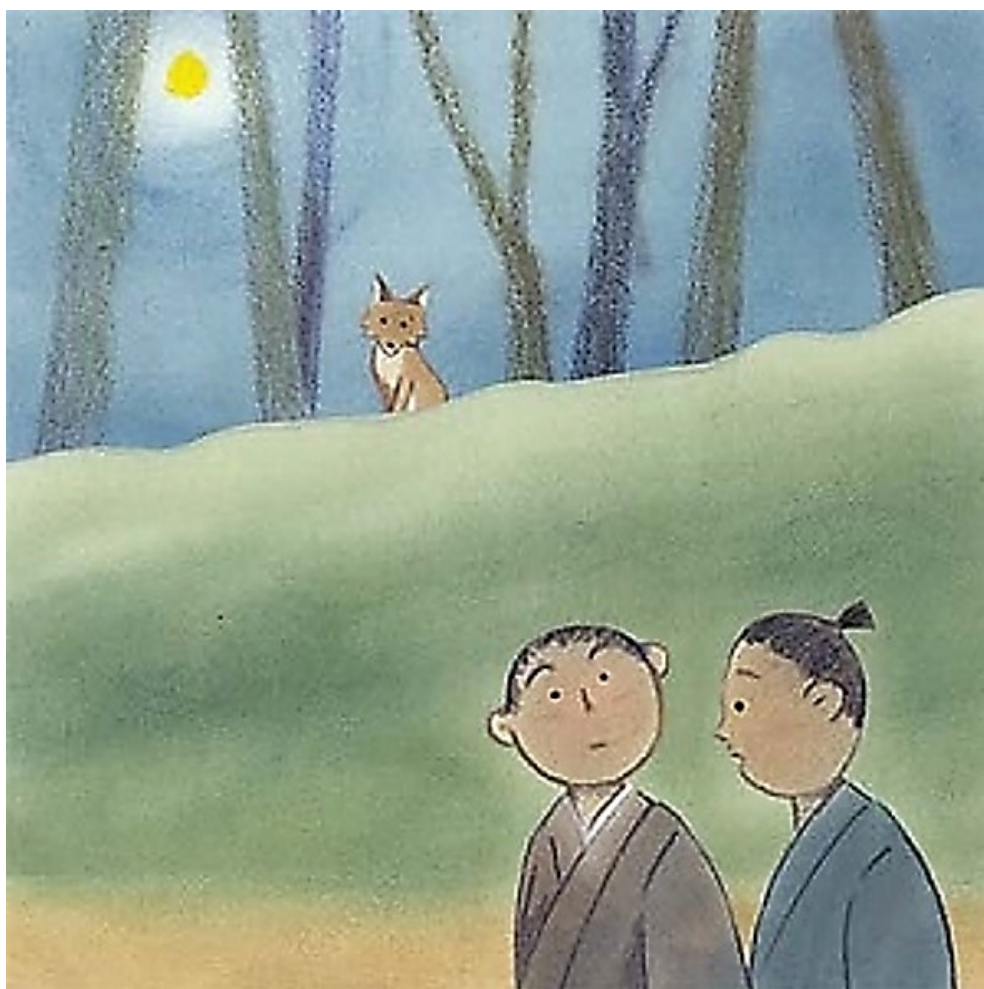
ごんは、これは しまったと 思^{おも}いました。かわいそうに 兵^{ひょう}
十^{じゅう}は、いわし屋^やに ぶんなぐられて、あんな 傷^{きず}まで つけられ
たのか。ごんは こう おもいながら、そっと 物置^{ものおき}の 方^{ほう}へ
まわって その 入口^{いりぐち}に、栗^{くり}を おいて かえりました。

つぎの 日^ひも、その つぎの 日^ひも ごんは、栗^{くり}を ひろって
は、兵^{ひょう}十^{じゅう}の 家^{いえ}へ もって 来^きて やりました。その つぎの
日^ひには、栗^{くり} ばかりで なく、まつたけも 二^に、三^{さん}ぼん もって
いきました。

4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금빛은 어슬렁어슬렁 놀러
나갔습니다. 나카야마 영주님의 성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데 좁은 길 저편에서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말소리가 들려옵니다. 귀뚫귀뚫 귀뚜라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つき
月の いい ばん 晩でした。ごんは、ぶらぶら あそびに 出かけ
ました。なかやま 中山さまの お城の した 下を とお 通って すこし いくと、
ほそ 細い みち 道の むこ 向うから、だれか く 来るようです。はなしごえ 話声が きこ
えます。チンチロリン、チンチロリンと まつむし 松虫が な 鳴いて います。



금빛은 길가에 몸을 숨기고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야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효주와
카스케라는 농부였습니다.

“여보게 카스케.” 라고 효주가 말했습니다.

“응?”

“나 말이지 요즘 아주 이상한 일이 있네.”

“무엇이 말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게
밤, 송이버섯 같은 것을 매일같이 보내준다네.”

“도대체 누가?”

“나도 잘 모르겠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단
말일세.”

ごんは、道の^{みち} 片^{かた}がわに かくれて、じっと して いました。

はなしごえ 話聲は だんだん 近く^{ちか} になりました。それは、兵十^{ひょうじゅう}と 加助^{かすけ}

と いう お百姓^{ひゃくしょう}でした。

「そうそう、なあ 加助^{かすけ}」と、兵十^{ひょうじゅう}が いました。

「ああん？」

「おれあ、このごろ、とても ふしぎな ことが あるんだ」

「^{なに}何が？」

「おっ^{かあ}母が ^し死んでからは、だれだか ^し知らんが、おれに ^{くり}栗や
まつたけ なんかを、まいにち まいにち くれるんだよ」

「ふうん、だれが？」

「それが わからんのだよ。おれの ^し知らん うちに、おいて
いくんだ」

금빛은 둘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이고 말고. 거짓말 같다면 내일 보러 오게나. 그
밤을 보여줄 테니.”

“거참, 이상한 일일세.”

그대로 둘은 묵묵히 걸어 갔습니다.

ごんは、ふたりの あとを つけて いきました。

「ほんとかい？」

「ほんとだとも。うそと おも 思うなら、あした み 見に こ 来いよ。

その くり 栗を み 見せて やるよ」

「へえ、へんな ことも あるもんだな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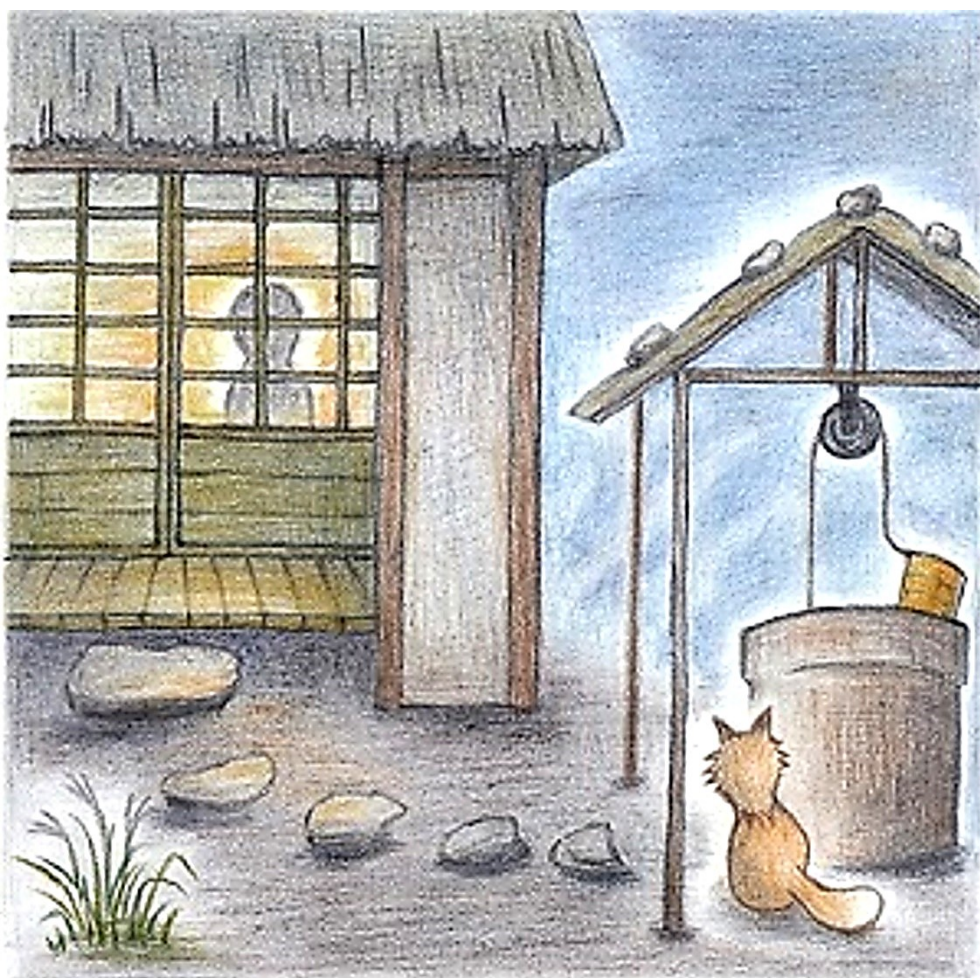
それなり、ふたり 二人は だまって ある 歩いて いきました。

카스케가 무심코 뒤를 쳐다봤습니다. 금빛은 깜짝 놀라 몸을 웅크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카스케는 금빛을 못 봤는지 그대로 재빨리 걸어갔습니다.

키치베에라는 농부의 집에 이르자 둘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탁탁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빛에 식발한 큰 머리가 비쳤습니다. 금빛은, '염불을 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물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세 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키치베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かすけ
加助が ひょいと、^{うしろ}後を ^み見ました。ごんは びくっと して、
^{ちい}小さく なって たちどまりました。かすけ
加助は、ごんには ^き気が
つかないで、そのまま さっさと ありました。

^{きち べ え}吉兵衛と ^{ひやくしやう}いう お百姓の ^{いえ}家まで ^く来ると、^{ふたり}二人は ^{そこへ}そこへ
はいって いきました。ポンポンポンポンと ^{もくぎょ}木魚の ^{おと}音が
して います。^{まど}窓の ^{しょうじ}障子に あかりが さして いて、^{おお}大きな
^{ぼう ず あたま}坊主頭が うつつて ^{うご}動いて いました。ごんは、「おねんぶつ
が あるんだな」と ^{おも}思いながら ^{いど}井戸の そばに しゃがんで
いました。しばらく すると、また ^{さんにん}三人ほど、^{ひと}人が つれだっ
て ^{きち べ え}吉兵衛の ^{いえ}家へ はいって いきました。お^{きやう}経を ^よ読む ^{こえ}声
が きこえて ^き来ました。



5

금빛은 불경이 끝날 때까지 우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효주와 카스케는 또 함께 돌아갑니다.
금빛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러 쫓아갔습니다. 효주의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성 앞까지 왔을 때 카스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는 분명 신이 하신 일일 거야.”

“응?” 효주는 깜짝 놀라 카스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계속 생각해 봤는데, 그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닐세. 신이야. 신께서 혼자 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그런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매일 신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ご五

ごんは、おねんぶつが すむまで、井戸^{いど}の そばに しゃがん
で いました。兵十^{ひょうじゅう}と 加助^{かすけ}は、また 一^{いっ}しよに かえって
いきます。ごんは、二人^{ふたり}の 話^{はなし}を きこうと 思^{おも}って、ついて いき
ました。

ひょうじゅう　かげぼうし
兵十の影法師を　ふみふみ　いきました。

お城の　　まへ　　き　　か　　すけ　　い　　だ
前まで　来た　とき、加助が　言い出しました。

「さっきの^{はなし}話は、きっと、そりゃあ、^{かみ}神さまの しわざだぞ」

「えっ？」と、兵^{ひょうじゅう}十はびっくりして、加助^{かすけ}の顔^{かお}を^み見ました。

「おれは、あれからずっと^{かんが}考えていたが、どうも、そりゃ、人間^{にんげん}じゃない、神^{かみ}さまだ、神^{かみ}さまが、お前^{まえ}がたった一人^{ひとり}になったのをあわれに^{おも}思わっしゃって、いろんなものをめぐんで^{くだ}下さるんだよ」

「そうかなあ」

「そうだとも。だから、まいにち^{かみ}神^{かみ}さまに^{れい}お礼^{れい}を^い言うが
いいよ」

「うん」

금빛은 실망했습니다. 내가 밤과 송이버섯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런 나에게 감사 인사를 안 하고 신께
인사를 드린다고? 헛수고했네.

ごんは、へえ、こいつはつまらないなと^{おも}思いました。おれ
が、栗^{くり}や松^{まつ}たけを^も持って^いってやるのに、そのおれに
は^{れい}お礼^{れい}を^いわな^{かみ}いで、神^{かみ}さまに^{れい}お礼^{れい}を^いうんじゃア、

おれは、引き^ひ合^あわないなあ。



6

그 다음 날에도 금빛은 밤을 가지고 효주네
집으로 갔습니다. 효주는 곳간에서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빛은 집 뒷문으로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その あくる 日^ひも ごんは、栗^{くり}を もって、兵十^{ひょうじゅう}の 家^{いえ}へ
出^でかけました。兵十^{ひょうじゅう}は 物置^{ものおき}で 縄^{なわ}を なって いました。それ
で ごんは 家^{いえ}の 裏口^{うらぐち}から、こっそり 中^{なか}へ はいりました。

그때 효주가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글썄 여우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장어를 훔쳐간 그 금빛 여우가 또 장난을 치러 왔군.

“좋았어.”

효주는 일어서서 공간에 걸어 둔 총을 꺼내 들어
화약을 넣었습니다.

その とき 兵十^{ひょうじゅう}は、ふと 顔^{かお}を あげました。と 狐^{きつね}が
家^{いえ}の 中^{なか}へ はいったでは ありませんか。こないだ うなぎを
ぬすみやがった あの ごん 狐^{ぎつね}めが、また いたずらを しに
来^きたな。

「ようし」

ひょうじゅう 兵十は た 立ちあがって、なや 納屋に かけて ある ひなわじゅう 火縄銃を
とって、かやく 火薬を つめました。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가까이 다가가 문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금빛을 향해 총을 탕! 쏘았습니다. 금빛은
털썩 하고 쓰러졌습니다. 효주는 달려 왔습니다.

집 안을 보니 마루에 밤이 가득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런!” 놀란 효주는 금빛을 쳐다보았습니다.

“금빛, 밤을 가져다 준 게 너였던 거야?”

금빛은 힘없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주는 총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푸른 연기가 아직도
총구에서 가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そして ^{あしおと}足音を ^ししのばせて ^{ちか}ちかやって、今 ^{いま}戸口を ^{とぐち}で ^で出よ
うと ^{する}する ^{ごん}ごんを、ドンと、うちました。

ごんは、ばたりと たおれました。

^{ひょうじゅう}兵十は ^{かけ}かけよって ^き来ました。家 ^{いえ}の ^{なか}中を ^み見ると、土間 ^{どま}に
^{くり}栗が、かためて ^おおいて ^{ある}あるのが ^め目に ^{つき}つきました。

「おや」と ^{ひょうじゅう}兵十は、びっくりして ^{ごん}ごんに ^め目を ^{おと}落しました。

「ごん、お前 ^{まい}だったのか。いつも ^{くり}栗を ^{くれ}くれたのは」

ごんは、ぐったりと ^め目を ^{つぶ}つぶったまま、うなずきました。

^{ひょうじゅう}兵十は ^{ひなわじゅう}火縄銃 ^をを ^ばばたりと、とり ^{おと}落しました。青 ^{あお}い ^{けむり}煙 ^がが、
まだ ^{つつぐち}筒口 ^{から}から ^{ほそ}細く ^で出て ^いいました。

눈깔사탕

だま
あめ玉

니이미 난키치

にいみなんきち
新美南吉



번역 한수경



따뜻한 어느 봄날, 어떤 여인이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내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보게, 좀 기다려주게나.”
 하며 맞은편 독에서 손을 흔들며 무사 한 명이 달려와 배에 뛰어 탔습니다.

はる 春の あたたかい ひの こと、わたし ^{ぶね} 舟に ふたり 二人の ちい 小さな こ どもを つ 連れた おんな 女の ^{たびと} 旅人が の 乗りました。

ふねが 出ようと すると、

「おうい、ちょっと 待って くれ」

と、どての むこうから てを ふりながら、 さむらいが ひとり
はし 走って きて、ふね と 飛びこみました。



배가 출발했습니다.

무사는 배 한가운데에 털썩 앉았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해서인지 그새 즐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수염을 기른 힘세 보이는 무사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히히 웃었습니다.

엄마는 입에 손가락을 대며,
 “조용히 해.” 라고 말했습니다.

무사가 화라도 나면 큰 일이기 때문이지요. 아이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ふね^{ふね}は^で 出^でました。

さむらいは ふね^{ふね}の^ま 真^{なか}ん中^{なか}に どっかり すわって いました。

ぽかぽか あたたかいので、そのうちに いねむりを はじ^{はじ}めました。

黒^{くろ}い ひげを は^は 生^はやして 強^{つよ}そうな さむらいが、こっくり こ
 っくり するので、こ^こどもたちは おかしくて、ふふふと わら^{わら}いま
 した。

お母^{かあ}さんは くち^{くち}に ゆび^{ゆび} 指^{ゆび}を あ^あ 当てて、

「だまって おいで」

と い^いいました。

さむらいが おこっては 大^{たい}変^{へん}だ からです。

こ^こどもたちは だまりました。



잠시 후 한 아이가,

“엄마, 눈깔사탕 좀.”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아이도,

“엄마, 나도.” 라고 말했습니다.

しばらく すると 一人の ^{ひとり}こどもが、

「^{かあ}母ちゃん、あめ^{だま}玉 ちょうだい」

と、^て手を ^さ差し^で出しました。すると、もう ^{ひとり}一人の ^こ子どもも、

「^{かあ}母ちゃん、あたしにも」と ^い言いました。



엄마는 품 속 호주머니에서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눈깔사탕은 이제 한 개 밖에 없었습니다.

“나 줘.”

“나 줘.”

두 아이들은 양쪽에서 졸라댔습니다.

눈깔사탕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몹시
곤란했습니다.

“착하지. 조금만 기다려주렴.

맞은 편에 도착하면 사줄 테니.” 하며 달랬지만,
아이들은, “나 줘, 나 줘.” 하며 떼를 썼습니다.

お母^{かあ}さんは、ふところから 紙^{かみ}の ふくろを と 取り だ 出しました。

ところが、あめ玉^{だま}は、もう 一つ^{ひと}しか ありません でした。

「あたしに ちょうだい」

「あたしに ちょうだい」

二人^{ふたり}の こどもは、両方^{りょうほう}から せがみました。あめ玉^{だま}は 一つ^{ひと}しか ないので、お母^{かあ}さんは こまって しまいました。

「いい 子^こたちだ から、待^まって おいで。向^むこうへ 着^ついたら、
か 買って あげるからね」と 言^いって 聞^きかせても、子^こどもたちは、
「ちょうだいよう、ちょうだいよう」と だだを こねました。



앉아서 졸고 있는 줄만 알았던 무사가 번쩍 눈을 떠
아이들이 조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을 방해해 무사가 화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얌전히 있어야지.” 하며 엄마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사가 칼을 쓱 뽑아서 엄마와 아이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새파랗게 질려서 아이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졸음을 방해한 아이들을 무사가 칼로
베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깔사탕 내놔.” 라고 무사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두려움에 떨며 눈깔사탕을 내밀었습니다.

이ねむりを して いた はずの さむらいは、ぱっちり 目を
あけて、子どもたちが せがむのを 見て いました。

お母さんは おどろきました。いねむりを じゃまされたので、
この おさむらいは おこって いるに ちがいないと 思いました。
「おとなしく して おいで。」

と、お母さんは 子どもたちを なだめました。

けれど、子どもたちは 聞きません でした。
すると、さむらいが すらりと 刀を ぬいて、お母さんと 子ど
もたちの 前に やって 来ました。

お母さんは 真っ青に なって、子どもたちを かばいました。
いねむりの じゃまを した 子どもたちを、さむらいが きて
しまうと 思ったのです。

「あめ^{だま}を だ^だせ」と、さむらいは い^いいました。

お母^{かあ}さんは、おそろおそろ あめ^{だま}を さ^さだ^だし出しました。



무사는 사탕을 배 가장자리에 놓고 칼로 탁,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자." 하며 아이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さむらいは それを ふね^{ふね}の へりに のせ、かたな^{かたな}で ぱちんと
ふた^{ふた}二つに わりました。そして、「そうれ」と、ふたり^{ふたり}の こ^こどもに
わ^わ分けて やりました。



그리고 나서 원래 앉아 있던 자리로 돌아가 다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それから、また ^{もと}元の ^{ところ}所に ^{かえ}帰って、こっくり こっくり
ねむり ^{はじ}始めました。

たげんごでんしえほんぶんこ
多言語電子絵本文庫 13

ばん ぎつね だま
バイリンガル版 ごん 狐 ・ あめ玉

かんこくご にほんご
韓国語と日本語

ぶん にい みなんきち
文：新美南吉

ねん ねん にほん じどうぶんがくさっか ぎつね ねん だいはうさく
1913年 - 1943年、日本の児童文学作家。『ごん 狐』（1932年）は、代表作

しょうがっこう きょうかしょ けいさい
であり、小 学校の教科書に掲載されている。

ぎつね
ごん 狐 絵：画工舎、浦田真理子

きょうりよく にほんしょうがいしゃ きょうかい
協 力：日本障 害者リハビリテーション 協 会

<https://www.jsrpd.jp/>

ほんやく こう
翻訳：高イエヨン

こうせい
校正：ハンスギョン

だま
あめ玉 絵：稲生みどり

ほんやく
翻訳：ハンスギョン

きょうりよく ほうじん ちきゅう むら せかいげん ごはくぶつかん
協 力：NPO法人地 球 ことば村・世界言語博物館

<https://www.chikyukotobamura.org/home.html/>

きかく せいさく たげんご えほん かい
企画、制作：多言語絵本の会RAINBOW

た げん ご え ほん か い
<多言語絵本の会RAINBOW>

もくてき
【目的】

- ① がいこく につな がる 子 ども た ち の ぼ ご ぼ こ く ご ほ じ い く せ い
外国につながる子どもたちの母語、母国語の保持、育成
- ② に ほ ん ご そ だ こ が い こ く ご き ょ う み か ん し ん か く だ い
日本語で育つ子どもたちの外国語への興味、関心の拡大
- ③ が い こ く ひ と し ゃ か い さ ん か き か い
外国につながる人たちの社会参加の機会

ね が か つ ど う
を願って活動しています。

か つ ど う な い よ う
【活動内容】

た げん ご が つ こ う と し ょ か ん
多言語よみきかせ（学校や図書館などで）

た げん ご で ん し え ほん せ い さ く
多言語電子絵本の制作



(RAINBOW のホームページサイトで公開)

<http://www.rainbow-ehon.com>

じ ゅ し ょ う れ き
【受賞歴】

ね ん は く ほう し ょ う
2017年 博報 賞

ね ん ぶ ん か ち ょ う ち ょ う か ん び ょ う し ょ う
2018年 文化庁 長 官 表 彰

ね ん こ う ろ う し ょ う こ か て い き ゃ く ち ょ う し ょ う
2019年 厚労省 子 ども 家 庭 局 長 賞

れ ん ら く さ き
【連絡先】

nihongo_crayons@yahoo.co.jp

RAINBOW の^{かくげんご}各言語ページ

にほんご		えいご		ちゅうごくご	
かんこくご		ポルトガル ご		スペインご	
インドネシ アご		フィリピン ご		ベトナムご	
ネパールご		タイご		ロシアご	
その他の アジアの ことば		その他の ヨーロッパ の ことば		アラビアご	
スワヒリご					

1	バイリンガル にほんむかしばなし	インドネシア語と日本語
2		英語と日本語
3		韓国語と日本語
4		スペイン語と日本語
5		中国語と日本語
6		ネパール語と日本語
7		フィリピン語と日本語
8		ベトナム語と日本語
9		ポルトガル語と日本語
10	ロシア民話 金の魚のはなし	日本語、ロシア語、英語、 中国語、ポルトガル語
11	バイリンガル版 ごん狐 ・ あめ玉	インドネシア語と日本語
12		英語と日本語
13		韓国語と日本語
14		中国語と日本語
15		フィリピン語と日本語
16		ベトナム語と日本語

